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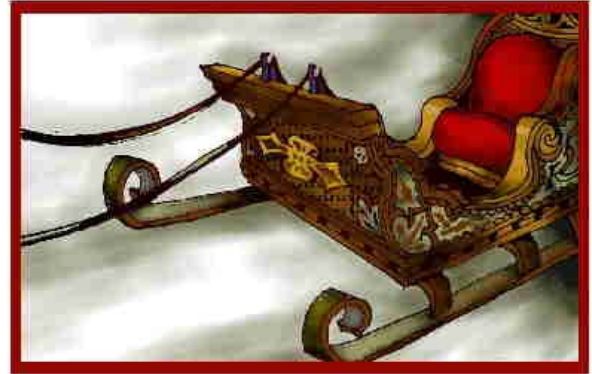
Voice in the Wildemess

12월호
2011

크리스마스 축제 초청합니다.



장소: 주님의 교회 (김의석 목사)
시간: Sunday, Dec 18,
4-7pm
주소: 12120 Copper Ave NE,
ABQ, 87123



Merry Christmas to Your Family from Ours

크리스마스에 날리는 종이비행기

이경화 장로



(13페이지에서 계속)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감사 서한

9페이지



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11월16일 Thanksgiving Lunch를6.25 참전 용사와
김치 축제 및 1년 동안 봉사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
을 초청하여 풍성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 **동당비** → 7페이지
이정길 교수

* **여호수아 장군의 위대한 업적** 10페이지
김준호 장로

* **남졌나? 밀졌나?** → 14페이지
김정근 목사



한인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천주교 식구들도 한자리에..



참정권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및 국외 부재자 신고서에 관한 모든 서류가 한인회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인회로 방문해 주시거나 재외 선거 홈페이지 <http://ok.nec.go.kr>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

를 이용해 주세요.

신청기간: 2011.11.13~2012.2.11

단요가 기체조 강연회가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1시부터 2시 반까지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한국학교 소식

다음 봄학기는 1월14일 토요일 10시부터 등록을 받고 1월 21일부터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웹사이트 <http://kaanm.com>에 들어가면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선아 교장 505 - 515 -4211)

어버이회소식:

12월 14일 수요일 올해 마지막 모임으로 크리스마스 겸 송년 파티를 가집니다. 다음 모임은 2012년 1월 11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봉사해 주시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어버이회 회원님들과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인록 소식

그동안 기다리시던 한인록이 마무리 단계를 거쳐 한국에서부터 엘에이를 거쳐 배송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1월부터 2월 대보를 잔치에 걸쳐 한인사회에 배포하도록 준비중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크리스마스에 날리는 종이비행기

이경화 제공

필자가 고안한 종이 비행기 중에는 미국 결핵협회에 해당되는 American Lung Association(ALA)의 청탁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 종이비행기가 있다. 종이접기비행기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Dart Paperplane에 한 단계 접기를 더 추가해서 파이로트 조종석이 있는 종이비행기로 고안한 것인데 비행기 이름을 ALA Delta Fighter로 정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와 함께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날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접기 안내문을 소개한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칼라 프린트가 있다면 그림에 보는바와 같은 패턴과 색깔로 디자인된 종이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프린트해서 접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그림파일을 올려 두었다. ALA의 Logo는 십자가에 수평 Bar를 더한 모양을 하고 있다. 빨간 적십자에 십자가를 겹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 때에 결핵예방을 위한 기금 모금으로 편지 우표 옆에 부치는 크리스마스 스티(Seal)를 만들어 사회사업을 한 것이 결핵협회가 시작했던 일임은 잘 아는 사실이다. 도면에 표시된 Logo와 표어, 협회이름에 쓰인 글자체등은 모두 엄격한 협회규정과 지시에 따라 만들어 진것임을 밝힌다.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www.amazingpaperairplanes.com/AmericanLungAssociationDeltaFighter.html>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는 수단으로 종이접기 비행기가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을 필자가 수신한 편지를 통해 아래에 소개해 본다.

2009년 12월31일 새해이브날 뉴질랜드에서 보내온 E-Mail을 받은 일이 있다. 나의 종이비행기가 달력으로 출판되어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를 기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베리 프로랜스 베네트란 분이 종이비행기 달력을 선물로 받고 종이비행기를 접으며 그의 딸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감사편지였다.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저는 평생을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12월14일 저의 생일날, 12살 되는 저의 딸로부터 생일 선물로 2011년도 종이비행기 달력을 받았 습니다. 종이비행기 접기의 재능과 정성으로 이런 좋은 제품이 나온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나라(뉴질랜드)는 새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



USA Legal Group, Inc.

A Law Corporation

상해법, 교통사고, 파산법 전문 변호사



Los Alamos 와 Albuquerque 인근에 산불로 인해 ash 가 집 혹은 건물로 날아들어 왔을때 compensation 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보험회사로 부터 Los Alamos 산불 이나 Arizona 산불의 연기와 재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을 받지 못하셨거나 deny 되셨나요?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외부지역에서의 재나 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clean-up cost이나 replacement cost 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New Mexico Attorney: Charles Lakins

Donovan Kang(도노반 강): 사무실Office 505-563-5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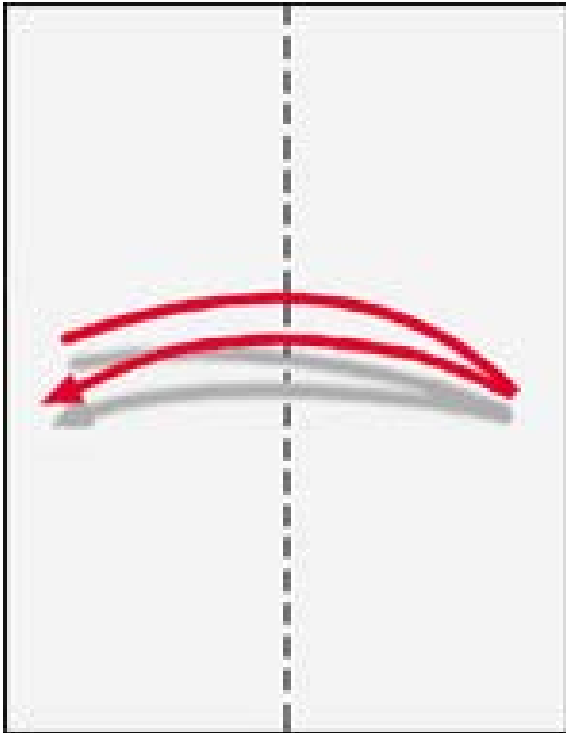
직통Direct 505-563-5539

는 나라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2010년 새해를 맞이한 지 55 분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의 다른 나라는 아직도 2009년에 속해 있습니다. 새해의 첫날 달력의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저의 딸과 20여분을 날리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주신데 감사하며 우리 딸이 이가 아빠를 위해 이렇게 매력적이고 마음에 쏙 드는 일 년 내내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좋은 선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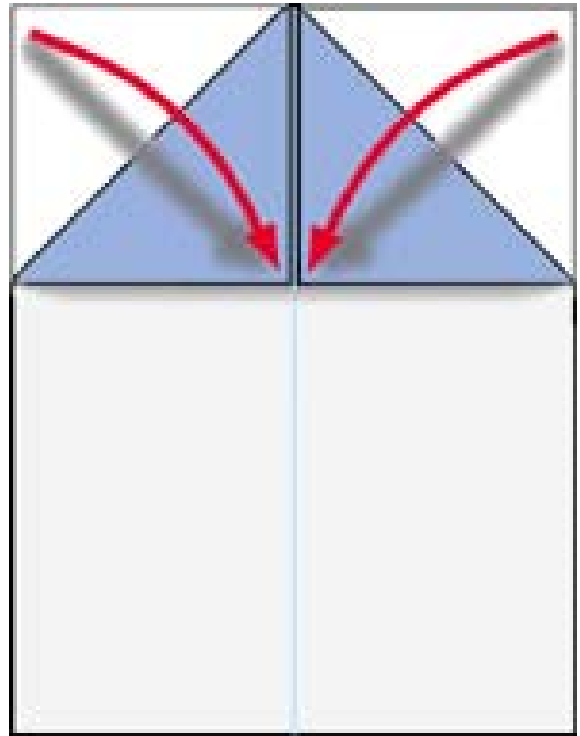
필자는 감사의 답장을 보내면서 달력에 있는 종이비행기는 나 혼자의 작품이 아니고 영국인 데빗 미첼의 작품과 합친 것이고 종이접기비행기를 달력으로 상품화 한 것은 Accord 출판사의 아이디어란 것을 알리면서 그 분의 감사편지를 텐버에 있는 Accord출판사로 전달했다.

ALA델타 전투기 종이 비행기 접는 방법



Step 1.

Use a sheet of 8 1/2-by-11 inch paper. Fold the paper in half lengthwise and run thumbnail along the fold to crease it sharply. Now, unfold the paper.



Step 2

Fold down the top corners as indicated by the arrows.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7.95

삼선짬뽕 \$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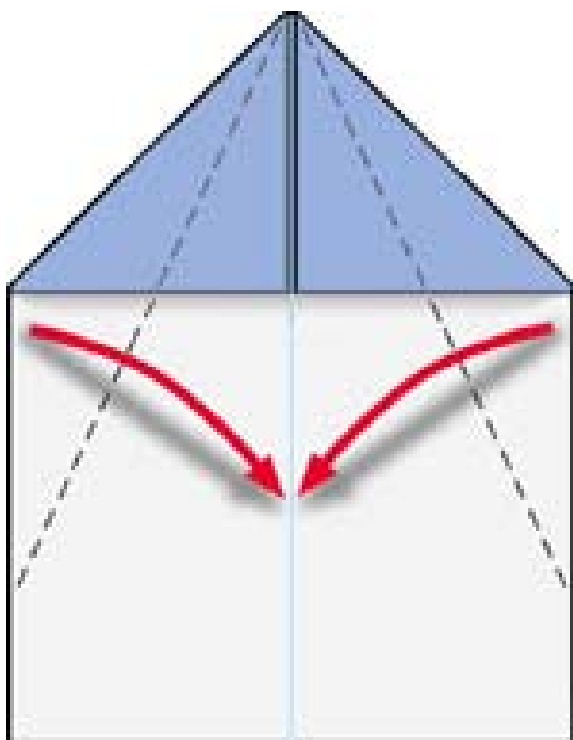
해물탕면 \$7.95

다섯가지 냉채 \$2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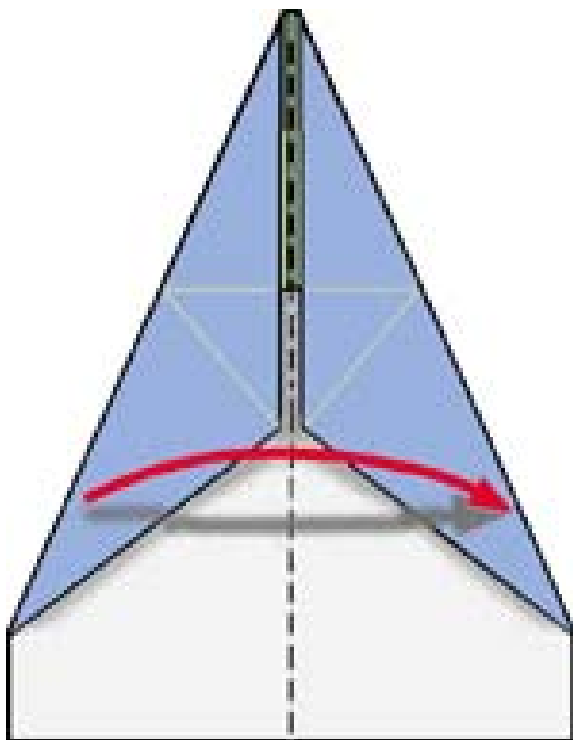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7.95

탕수우육 \$1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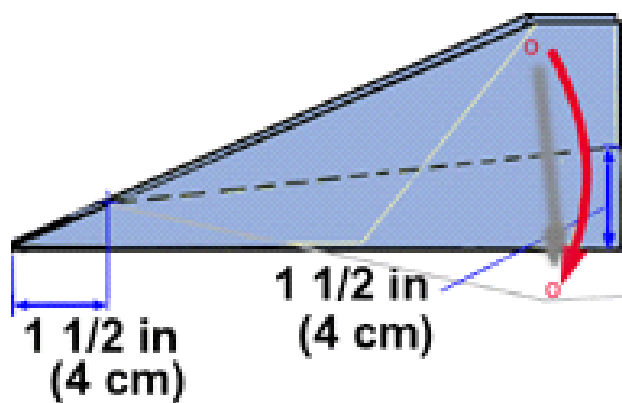
양장피 잡채 \$1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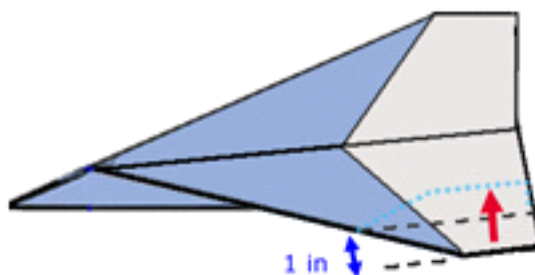
Step 3
Fold the two edges toward the center line, as indicated.



Step 4.
Make a valley fold in half.
Turn the plane 90 degrees as shown in figure of Step 5.



Step 5
Create a wing crease that begins at the nose as shown.



Step 6.
Bend up the winglet as shown. Repeat step 5 and 6 for other wing.



Sushi & S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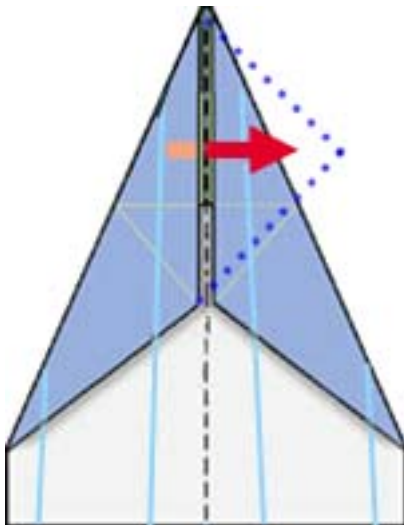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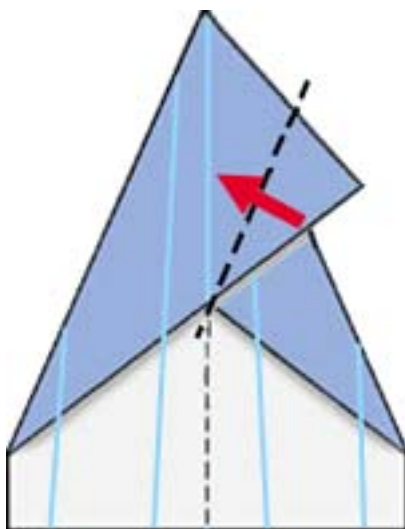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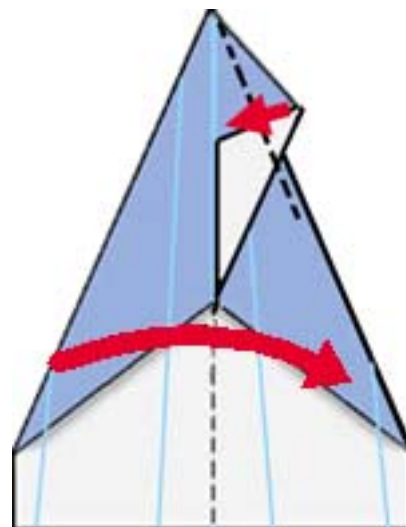
Closed on Sun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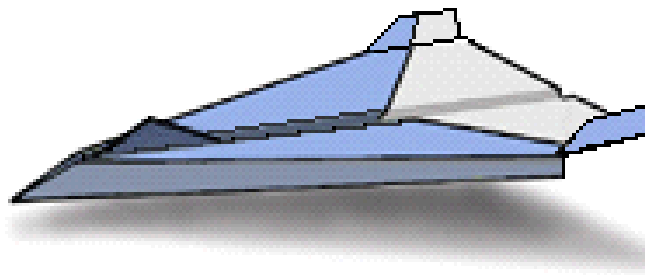
Step 7.
Open the model and bring out the flap form the left side layer.



Step 8.
Fold the triangle so that the lower edge meets the center line.



Step 9.
Repeat similar folding for the upper part of the flap.



Step 10.
Form 3-dimensional shape as shown in figure.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Delta Fighter is complete.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Mon~Sat
10:00~6:00

Sunday
close



몽당비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Accord Publishing에서 발행한 2012년도 종이비행기 달력의 표지와 뒷 표지. 필자와 David Mitchell이 제공한 40종의 종이비행기가 365일을 커버하고 있다.

뽕족한 끝 부분이 많이 닳아서 거의 못쓸 정도가 된 물건을 몽당이라고 부른다. 지금이야 물건을 몽당이가 되도록 쓰는 일이 흔치 않으나, 내가 어릴 적에는 몽당이를 종종 볼 수 있었다. 닳아서 끝이 무딘 몽당뿔을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 간신히 손에 잡힐 만큼 짧게 닳아 못쓰게 된 몽당연필을 버리기가 아까워 필통에 넣어두고 다니던 기억은 있다. 그리고 아주 모지라져서 자루만 남은 몽당비로 마당을 쓸다가 잘 다져진 바닥에 보기좋은 자국을 남긴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드라이브 웨이에 있는 아름드리 시카모어 두 그루는 한 해 내내 앞마당을 어지럽다. 뒷마당의 산사나무, 코튼우드, 일본단풍, 폰티니아, 목련은 계절 따라 잎이나 꽃을 떨어뜨린다. 옆마당의 높게 자란 은단풍 세 그루는 늦봄에 열매를, 이른 가을부터는 잎을 떨어뜨린다. 가을이 깊어지면 건조해진 날씨가 먼지를 더 많이 일게 하고, 겨울을 대비하느라 나무도 잎을 더 많이 버린다. 게다가 오후면 어김없이 바람이 불어 사방이 어지럽다. 나는 바람이 없는 아침에 비를 들고 밖으로 나가고는 한다. 늘 하던 대로 오늘 아침에도 비를 들고 앞마당으로 나가 먼지와 낙엽을 쓸어 모았다. 쓸리는 느낌이 전과 같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니 비의 끝부분이 많이 닳아 몽당비가 되어있었다.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도구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광주에서는 아파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던 몇 가지 생활용품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는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골고루 갖추어야 한 것은 청소도구였는데, 주변에 나무가 많은데다가 사철 꿩이지 않고 불어대는 바람 때문이었다. 진공청소기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것만해도 카펫에 가라앉은 먼지를 속속들이 빨아들이는 강력한 것은 물론, 타일 위에 떨어지는 먼지를 수시로 없애기에 편리한 코드가 없는 것까지 갖추어야 했다. 거기다 차고나 마당에서 쓰는 진공청소기도 따로 필요했다.

이곳 앨버커키 사람들은 나뭇잎이 떨어지면 블로워로 한 곳에 모은 다음, 다시 넓은 잎도 빨아들이도록 고안된 진공청소기로 거뒀들인다. 수많은 생활용품을 다 갖추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 시골에 살며 쓰레기는 비로 쓸어내는 데 익숙한 나는 마당의 청소에는 비만 사용하기로 작정했다. 먼이 국 땅으로 옮겨온 직후여서, 비를 사러 낫선 곳을 헤



-예제이-

매고 싶지 않아 우선 옆의 딸네 집에서 쓰던 빗자루 하나를 가져왔다. 그 수수비가 서너 해를 쓰다 보니 몽당비가 된 것이었다.

세상살이가 하도 많이 변해서 내가 사는 동안 다시 몽당비를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비는 사탕수수, 변종인 비수수로 만든 것이었다. 비수수는 1700년대 초 이태리로부터 들여와 관상용으로 정원에서 재배되다가, 1800년대 중반부터 일리노이 주에서 비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여러 주로 퍼져나갔으나 수요가 한정되고 수확하는 데에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어 재배면적은 넓지 않았는데, 1970년까지 많이 재배된 곳은 오클라호마 텍사스 뉴멕시코 콜로라도 등이었다. 일년초인 비수수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키가 2미터에서 4.5미터까지 자라며, 30 - 60센티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부채모양의 꽃송이에 열매를 맺는다. 익은 열매는 귀리와 비슷해서 가축의 사료로 쓰였고, 꽃송이는 비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넓은 마당을 가지고 살았다. 마당은 타작하고 곡식을 말리는 곳이며, 벼를 맥동구미에 저장했다가 가마니에 담아 내가는 곳이다. 타작을 끝낸 후 벼짚을 쌓아두는 곳이고, 겨울에 쓸 땔나무단을 쌓아두는 곳이다. 한여름 밤에는 모깃불을 피워놓고 대나무 평상에 앉아 더위를 식히는 곳이다. 마당은 곧 일터였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항상 말끔하게 쓸어두어야 하는 곳이었으며, 그때마다 쓰이는 것이 바로 대비였다. 이파리를 떼어낸 대의 낭창낭창한 잔가지를 엮어, 손잡이로 대 줄기 하나를 가운데에 넣고 단단히 묶어서 만든 대비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몽당이가 되고는 했다.

부엌이나 토방은 수수비로 쓸었다. 수수는 식량으로 쓰거나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 재배했지만, 수수짚을 떨어 낸 수수깡도 버리지 않고 줄기와 함께 비를 만드

는 재료로 사용했던 것이다. 좁은 곳을 쓸려면 대비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수수비가 제격이었는데, 가볍고 작아서 마치 지금의 휴대용 진공청소기 같았다. 방이나 마루를 쓰는 비는 이것들과는 아주 달랐다. 한 달에 몇 번 정해두고 열리는 십 리 밖의 시장에 가서 사다 쓰던 방비는 매어진 모양이며 손에 잡히던 감촉이 여간 좋은 게 아니었다. 어찌다가 몽당이가 된 방비로 얻어맞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비수수로 만든 것이었지 싶다.

내 집에는 몽당비 말고도 뿔마당과 차고 그리고 실내에서 쓰는 비가 세 자루나 더 있다. 이것들은 자루부터 온통 비닐로 만들어졌다. 자루까지 나무로 된 몽당비는 쥐면 촉감부터 달라 손이 먼저 간다. 여러 번 쓸어야 깨끗해져서 불편하지만 정감이 넘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몽당비는 번번이 나를 고향으로 데려다 준다. 손에 익어서 쥐면 매끈하던 대비, 수수비, 방비들의 느낌을 아련히 떠올려준다. 자주 어질러지는 앞뒤마당의 청소엔 비만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잘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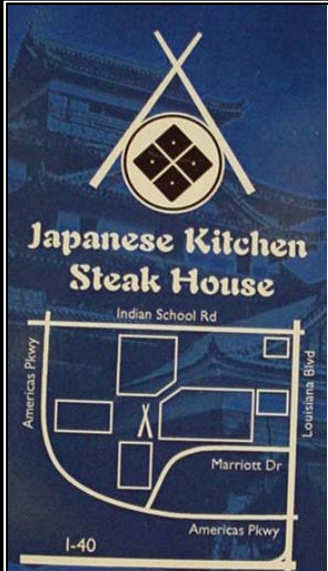


ALLSTAR REALTY L.L.C.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Indian School Rd
Americas Pkwy
Louisiana Blvd
Marriott Dr
I-40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분, 6코스:40분, 8코스:50분)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652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84.8937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대한민국제주 세계대자연경관선정감사서한



(사진: 제주도 돌하르방)에 선정된 것은 전 국민과 해외 동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입니다.

즉, 남녀노소 전 국민은 물론 언론과 사회단체, 정부와 국회, 각급 기관·기업, 국군 장병과 해외동포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지난 1년 여간 다사다난했던 여정을 함께 해주셨기에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벅찬 감동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소식은 미국의 CNN·MSNBC·USA투데이·내셔널 지오그래픽·인터내셔널 비즈니스타임즈, 영국 BBC,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지, 중국 신화통신 등 전 세계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AFP는 238억원의 정부 예산을 쓰고도 이스라엘이 탈락했다는 사실까지 보도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7대자연경관 국가로 선정되면서 수출 주도 공업국가, 전쟁 위험 국가라는 고착화된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자연이 아름다운 녹색·환경 국가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을 계기로 국가 브랜드 가치도 비약적으로 상승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앞당기는 전인차가 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발표 후 14일(월) 증시에서 항공·호텔·카지노 등 여행·관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어떤 종목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강한 반증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제주도와 대한민국이 관광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내는가는 앞으로 어떻게 챙겨 나가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범국민추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인류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를 길이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책무도 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더불어 국민과 해외동포, 세계시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 오시는 분들이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에 감탄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하고 달라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년 여간, 위대한 세계7대 자연경관 제주 선정 도전을 함께 해주신 은혜,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늦은 가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 추진 위원장
정 윤 찬 올림
제주 특별 자치 도지사 우 근 민

※ 세계7대자연경관 활용 실천과제, 자연보전정책에 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불가사의)선정』 메뉴“알림마당”등록)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24-Hour
Customer Service

Armani Mansour
Licensed Sales Producer
The Keller Agency

Allstate Insurance Company
6321 Riverside Plaza Lane NW
Albuquerque, NM 87120

Phone 505-898-8565
Fax 505-898-7674
armanimansour1@allstate.com

여호수아 장군의 위대한 업적

김 준 호 장 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6-7절)

벌써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왔군요. 독자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절 맞으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매달 발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 편집위원들과 또 여러 지역으로 발송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이 번호에 성경 이야기를 쓰게 된 것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성경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독선적으로 지휘하지 말고 중용을 지키며 율법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 지키게 하고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라고 지시한 말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 팔과 같은 역할을 출애굽 때부터 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를 도우며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훈련받은 동역자였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였다니 그 동안 수없는 단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들의 평범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좀 가혹하게(?) 처리하신 것이 아닌가도 여기게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 엄청난 과업을 맡기고 일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시다니-----,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며 10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였고 또 홍해바다 앞에서 보여준 전무후무한 기적은 모세를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크나큰 감명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정말 최고의 사역자이며 선지자였는데도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 민수기 20장 7-12절에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다. 즉 회중을 모아놓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성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내리쳤던 것이다.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목 말랐던 자들이 해갈하게 되었고 짐승들까지 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끝까지 참지 못하는 성격을 받아 드릴 수가 없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신다. 모세의 간절하게 간청하는 말씀이 신명기 3장 25절에 있다. 즉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 뿐만이 아니라 불순종 하는 백성들도 모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민수기 32장 11-12절). 애굽을 떠날 때 나이가 20살이 넘었던 자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다. 이들은 얼마나 많이 모세에게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가! 그들은 정녕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말았다. 다만 모세와 여호수와 갈렙 만 남게 되었는데 모세마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120세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묘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비슷한 방법으로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다. 모세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약 60마일 정도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을 보냈다. 이것은 알바커키에서 신타페 정도의 거리이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나서 사람들은 결국은 10명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루에 정복할 수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모세의 탁월했던 지도력도 무참하게 짓밟혔다. 노예근성이 남아 있었던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또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털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 갈 수가 없었다.

독자들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적힌 한심스러운 많은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을 안 봐어도 현대 교회의 양상을 보면 양식있는 신도들은 곧장 알 수 있다. 그때 두 정탐꾼으로 가담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택했다라면 그들은 그런 쓰라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가졌던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 싯딤에 진을 친 후에 두 명의 밀사를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 성으로 침입시켜서 그 안의 동태를 파악했다. 그 두 밀사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 24절에 있다. 이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 권 분

■ O f f i c e :
505-828-1366

■ F a x :
505-828-0773